

'교육도시' 간판 다시 세우는 데 팔 걷어붙인다

익산시가 명품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는다. 익산시는 △농촌 유학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조성 사업(HIVE) △100인 원탁회의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육 발전 특구 시범사업 공모 등 미래 세대를 길러낼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익산은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익산역(옛 이리역)의 존재를 통해 교육도시 기능을 수행했다. 군산과 전주, 논산 등 인접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 열차를 타고 오가며 익산 유학을 한 것이다.

익산시는 빛바랜 '교육도시' 간판이 다시 빛을 발하도록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 재건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익산시가 명품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시청에서 열린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정현을 시장, 최중요 익산시의회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유학생 5명과 함께
응포초에서 첫 농촌 유학사업 나서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 조성 통해
청소년 등에게 직업교육 기회 제공

4월 100인 원탁회의서 시민 의견 수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사업 도전

▲농촌 유학
익산시는 올해 응포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수도권 유학생' 4명과 함께 첫 농촌 유학 사업에 나선다. 농촌 유학은 대도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농어촌 초·중·고교가 사업 대상이다. 익산에서는 올해 응포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유학 기간은 올해 입학기부터 내년 2월까지다. 희망 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유학생 가족의 인력한 보금자리가 될 가족 체류형 거주지 4개소를 발굴했다. 한 학생당 50만원의 경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온 어린이가 가정 외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농촌생활 가이드를 배정한다. 또 지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주 여건 증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응포초 농촌유학 가족캠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시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청년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전문대학인 원광보건대학교와 익산시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대학은 지역 특화 분야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익산시는 양질의 관련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 열린 100인 원탁회의.

익산지역 특화 분야는 그린바이오식품과 돌봄서비스다. 관련 교육과정으로 △그린바이오푸드 △영유아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관련 전문가를 길러내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시작돼 올해 마지막 3차연도를 맞이했다.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57억원 중 시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2억원이 모두 국비로 조성돼 있다. 특히 국비 52억원 중 2억원의 경우 1차연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해 인센티브로 확보한 금액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입주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 실업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 산업 발전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전문가 등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지원청과 협력하는 익산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기초 수영교실,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지역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이로움 고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해 진로 체험과 학업 신장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미래 세대가 달려 나갈 길을 닦는 마음으로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와 싶은 익산이 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고-2024-01 2024년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

사업개요

일시: 2024년 2월 16일(금) 14:00~16:00
장소: 무주군 무주군민회관 (민원봉사과 2층)
대상자: 무주군민[산림치유관광 관련 단체·조직, 기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심있는 단체·조직등]

사업내용

-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이해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례 소개
- 신규 액션그룹 및 청·장년스타트업그룹 모집 안내
- 질의응답

핵심 사업 소개

- 2024년 제 2기 액션그룹 모집 안내
- 2024년 청·장년스타트업지원사업 모집 안내
- 춘하추동 마을문화축제 안내
- 리빙랩(학습동아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 기타 사업 소개



※ 관련문의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사무국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실로 1338-1 연구동 2층 202호
(http://forestmj.kr/, 063-324-0996)